

2019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탈핵 예배 자료집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이 자료집은 2019년 탈핵주일(3월 10일)과 탈핵연합예배(3월 11일)를
위한 예배순서와 기도문, 설교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사무국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203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메일 greenchurch@hanmail.net / 전화 02-711-8905

여는 이야기

2019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쓰나미)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덮쳤고, 이 재해가 핵발전소의 폭발로 이어졌던 사고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며 단 1명의 사상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살던 곳을 떠나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17만여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고였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준비하는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탈핵 예배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고, 탈핵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부의 탈핵선언이 무색하게도 앞으로 신고리 4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까지 다섯 기의 핵발전소가 더 가동됩니다. 이 핵발전소들은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보여준 미래의 참혹함 때문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후쿠시마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수습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주변지역에 미친 피해 역시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현재 격납건물 안은 사람enkering 로봇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심용융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땅이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임시로 쌓아둘 장소조차 찾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체르노빌에서 경험했듯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오염된 땅은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현과 인근 군마현에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갑상선암이나 백내장 등의 질병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이 보여준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절실히 바라는 마음은 더 이상 이런 참혹한 미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탈핵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고백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죽음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핵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탈핵예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2019년 탈핵주일 예배 순서

- 인사 (일어서서) / 인도자

인도자 /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명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시편 23편 1-6절 (일어서서) / 인도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새번역)

- 찬송가 9장 1절 (일어서서) / 다함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 예배의 기원 (일어서서)

생명의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곳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주시옵소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찬송가 27장 4절 (일어서서) / 다함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 공동 기도 / 다함께

인도자 /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회 중 / 하지만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해서도, 꿈꾸어서도 안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도자 / 핵발전은 편리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회 중 / 하지만 핵발전은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숨겨왔습니다.

인도자 /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체했고 드러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회 중 / 체르노빌은 먼 나라의 일이라고, 후쿠시마는 특별한 일이라고 태연해 했습니다.

인도자 / 하지만 그 사이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만들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회 중 / 주여,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이제 우리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핵발전의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회 중 /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 이 땅 곳곳에서 핵 없는 세상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회 중 /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의 선포 / 사도행전 8:9-24 / 인도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 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 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못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어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번역)

- 말씀의 나눔 / 마술사들의 착각 / 설교자

- 찬송가 550장 / 다함께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상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 아멘

- 세상의 외침 / 답이 없는 핵폐기물의 실상 / 말은이

- 중보 기도 / 말은이

- 찬송가 632장 / 다함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권면과 파송 (일어서서) / 다같이

인도자 / 이제 온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핵발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아파하는 이 땅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 받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들을 시작합시다. 오직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 중 /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혜와 용기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 축도 (일어서서) / 설교자

예배 자료 1 - 설교문

마술사들의 착각

사도행전 8장 9-24절

탈핵주일로 지키는 이번 주, 공교롭게도 성회수요일을 보내고,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수난을 마음에 아로새기는 40일입니다. 예수의 행적을 쫓으면서, 예수의 삶과 신앙의 궤도를 곱씹으며, 제자도(道)에 깊숙이 나의 존재와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며,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법, 곧 십자가 아래 세우”¹⁾는 40일입니다. 이는 존재의 귀천 없이, 생명살림에 앞장섰던 예수의 큰 뜻으로, 이는 이번 주 탈핵주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인류는 엄청난 참극을 목격합니다. 이 참극은 TV로 생중계되고, 마치 영화처럼 장면 장면을 앞 다투어 실시간으로 보도합니다. 심지어 시청자들은 현장감이 넘치는 생생한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보았습니다. 차라리 영화였으면 더 좋았을, 이 장면은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마을 전체가 아닌, 사고 구역 반경 30km를 폐쇄시킨 도시 전체가 아닌 일본 전역에 닥친 재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묵과할 수 없는,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재앙입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가 재앙에 가깝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직도 제대로 된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고, 이 사고로 인한 핵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얼추 가늠할 뿐입니다. 8년 전 인류는 철저하게 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사고가 있기 전, 인류에게 두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1979년 3월 28일 미국 스리마일섬에서 참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20만 명 넘게 피폭을 당했던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30년 가까이 줄곧 무시했습니다.

구역에 갔다. 벌써 여러 번 가보았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으로 인해 무너져간다. 모든 것이 변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무너져간다. 그 세상에는 악조차도 달라질 것이다. 과거는 이제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위로하지 못한다. 그 안에 답이 없다. 예전에는 항상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나를 파괴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생각에 빠진다)²⁾

핵발전소는 인류의 미래를 저당 잡으며, 심지어 반감기가 일만 년 이상 되는, 이것조차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최악의 오염물질을 생산하면서, 현재 인류는 갇힌 길 없는, 미래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탈핵을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의 재앙이 겪은 후,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는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사고는 곧 재앙이며, 인류멸절의 길임을 3번의 사고로 겨우 깨달은 셈입니다. 이 모든 시발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 불완전함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으며, 심지어 환상과 신화를 심어주었습니다. 핵에너지가 인류의 축복인 마냥, 그리고 화석연료가 고갈된다는

1) 디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김순현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109

2)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김은혜 옮김. (서울: 새잎, 2011), 57

위기상황을 부추겨, 핵에너지가 유일한 대안 혹은 대체에너지인 마냥 속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에너지 신화에 매몰되어있습니다. 25기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이 5기 이 중 3기는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되는 것들입니다. 건설예정인 4기나 더 됩니다. 5기가 완성되면, 총 30기(건설예정까지 포함하면, 34기)가 됩니다. 지역도 영광, 울진, 영덕, 경주, 그리고 부산에 있습니다. 핵발전소 반경 30km에는 인구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밀집률이 최고입니다. 이는 사고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사회의 대혼란으로 야기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사용연한이 2007년까지인 노후발전소를 사용을 승인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이 오래된 순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노후발전소가 바로 심심치 않게 지진이 발생하는 경주 월성 1호기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고는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항상 예외상황은 발생하며, 이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함을, 안전신화가 단숨에 무너져 내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 사고가 결코 일본에서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시간순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에 일어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도 중 한 사람,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 표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서에서는 시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9절에서 마술은 “μαγείω”, NIV는 “sorcery”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악령에 의한)요술로 대변됩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요. 소위 마술을 “mag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놀이로서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9절 후반부에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요술을 사용했으니,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이 됩니다. 개역 한글에서 “자칭 큰 자라 하니”로 NIV에서는 “boast”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과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술을 잘 부렸었던 탓인지, 그는 지위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주변 이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11절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11.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매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놀라운 무언가를 계획해야 함은 물론, 듣기지 않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요술이라고 밝혀지거나, 속임수라고 들통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거나 하나 둘 씩 그의 주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마술사 시몬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일 것입니다. 핵에너지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핵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라고 온갖 포장을 하지만,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또한 속임수라고 밝혀지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치로 값싸고 효율 좋은 에너지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대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요술이라고 판명되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피해서 빈번한 사건 사고와 현재 핵발전소가 정말 기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해 이익을 취하고, 국민의 안보를 볼모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자신들만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영원한 골칫거리를 물려주고, 모든 것을 전가하는 몰지각한 행태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드룬 파우제방의 소설에 써 내려간 핵폭발 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불멘소리가 더 이상 소설이 아닌 현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는 모두 꺼져 버리라고 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막을 수도 있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했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 수렁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남겨 주지 않을 거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낳은 거야?”³⁾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살펴보기에, 빌립은 신기하게 요술을 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빌립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17.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차별과 배제의 곁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깜짝 놀랄 요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자체를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기쁜 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은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4.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은 이들의 은사를 확인시켜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존재자체를 세상에 확인시켜주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현재에도 핵발전소 주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왔습니다. 이들은 여러 방사능 누출과 송전탑의 가공할 만한 전자파로 인해서 삶의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은폐되어왔습니다. 이들의 존재자체를 인정해주고, 이들의 목소리를 발견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을 직접 찾아 안수해줬던 것처럼 우리들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바울의 조언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진귀한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19절입니다.

3) 구드룬 파우제방,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함미라 옮김, (서울: 보물창고, 2015), 151

- 18.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19.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기한 제안을 합니다. 돈을 내고 성령을 산다고 제안합니다. 참으로 그다운 발상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신묘한 기술과 속임수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오늘날의 자본만능주의를 생각나게 합니다. 일종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울 심산입니다. 본인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인간중심주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말하는 권능과 베드로가 말하는 권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δύναμις”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술사 시몬은 “ἐξουσία”로 기능적인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하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는 NIV에서 직접적으로 “ability”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기능에 더욱 가까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의 관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상반된 관점을 발견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지점, 세상을 바라보는 지점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함께 상생하고, 공존해야 할, 존재자체를 인정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단지 하나의 기능적 요소로만 그리고 제품으로 사용할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이는 자본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야 할 무생물로 그리고 이윤 창출의 바탕으로만 여깁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개발 이익과 더불어 핵발전소의 효용성까지도 연결됩니다. 인류는 자본만능주의를 기저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진보에 대해 토마스 베리는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산업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진보’라는 환상 아래 공기와 물과 땅을 망쳤으며 모든 기본 생명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술에 매혹된 시기, 변화된 의식 상태, 심리적 고착 상태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황홀경이 사라지고 있다.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3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너희들은 돈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이를 돈으로 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의 시작부터 그릇된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로 생각했던 논리나 이데올로기가, 불의에 종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핵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고, 가장 효용성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과연,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제선정이 되었는지를 바라 봐야 됩니다. 핵발전소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많은 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4)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맹영선 옮김, (서울: 대화출판사, 2013), 135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에너지, 핵발전소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폐기물들이 인류에게 해가 되고, 앞으로 몇 만 년을 괴롭힐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60년은 너무나 멀니다. 우리에게 1년은 몇 만년의 미래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에너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탈핵해야 합니다.

유희경 시인의 <작은 일들>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략)

어떤 작정이 없다면 사람은
금방 슬퍼지고 만다
고작 덥네 더워 여름이네 여름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만
잔뜩 떠올리면서

오늘날 인류가 지구와 자연에게 부끄러운 일들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기도와 그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역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책무이고, 선물로 준 은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보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의 실수로 인류멸절이 가능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류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생명세상이 올 수 있게, 이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그리고 온 지구의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도 힘써야겠습니다.

예배자료 2

핵폐기물 답이 없다.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들을 일컫습니다. 근래 알려진 라돈은 기체 방사성 물질로서 폐로 침투해 폐의 세포의 조직을 파괴하는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방사성 물질들은 모두 알파선, 베타선, 감마,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엑스선을 비롯해 중성자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뿜고,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대 의대 교수인 김익중 교수는 “암은 세포 안에 있는 DNA라는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방사능에 의해서 유전자에 손상이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유전자에 손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손상된 세포 중 일부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다.”(한국탈핵, 김익중 111쪽)라고 말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사람의 세포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지속적인 투과나 섭취 등을 통한 내부피폭은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갖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으며 붕괴하여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데 최초 양의 절반이 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가 10회쯤 지나면 최초 양의 10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영향이 미미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마다 반감기는 다르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여러 차례 언급된 세슘은 약 30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고, 사용후 핵연료에는 약 10만년의 반감기를 가진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이나 지하수를 통해 동물이나 식물,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 이 물질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들이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곳도 10만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나 추후 5기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8기의 핵발전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핵 쓰레기를 감당할 공간이 존재할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세대의 편리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던져주고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속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

핵종	반감기	방사능량(단위 : 조베크렐)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섭취한도”의 약 몇 배인가(a) (1년 후 값에 대해)
트리튬(H-3)	12.3년(β)	19	17	12	33만배
탄소14(C-14)	5730년(β)	4.9	4.9	4.9	280만
셀레늄79(Se-79)	6.5만년(β)	0.015	0.015	0.015	4만
크립톤85(Kr-85)	10.8년(β)	330	290	180	-(b)
스트론튬89(Sr-89)	50.5일(β)	225	0.01	0	23억
스트론튬90(Sr-90)	29.1년(β)	2700	2600	2190	9600억

지르코늄95(Zr-95)	64일(β)	1200	0.5	0	110억
니오브95(Nb-95)	35일(β)	2460	1.1	0	26억
테크네튬99(Tc-99)	21만년(β)	0.49	0.49	0.49	100만
르테늄103(Ru-103)	39.3일(β)	93	0	0	2억
르테늄106(Ru-106)	1.0년(β)	11000	2700	21	2800억
은110m(Ag-110m)	249.8일(β)	58	7.7	0	8.2억
카드뮴113m(Cd-113m)	14.1년(β)	2	1.8	1.3	3.2억
텔루륨125m(Te-125m)	58일(IT)	100	63	11	3.3억
요드129(I-129)	1570만년(β)	0.001	0.001	0.001	25만
요드131(I-131)(c)	8.0일(β)	(2.2×10^{-8})	0	0	-
세슘134(Cs-134)	2.1년(β)	4100	2100	200	820억
세슘135(Cs-135)	230만년(β)	0.0138	0.0138	0.0138	3만
세슘137(Cs-137)	30.1년(β)	3700	3600	3100	510억
세륨144(Ce-144)	284.9일(β)	18000	3100	6.1	1200억
프로메튬147(Pm-147)	2.6년(β)	3900	2300	360	390억
유로퓸154(Eu-154)	8.6년(β)	360	310	175	9억
유로퓸155(Eu-155)	4.7년(β)	220	167	55	33억
넵튬237(Np-237)	214만년(α)	0.01	0.01	0.01	33억
플루토늄238	87.7년(α)	83	83	69	16조
플루토늄239(Pu-239)	24100년(α)	11	11	11	2.5조
플루토늄240(Pu-240)	6560년(α)	19	19	19	4.3조
플루토늄241(Pu-241)(d)	14.4년(α)	4400	4000	2860	20조
플루토늄242(Pu-242)	3730만년(α)	0.07	0.07	0.07	140억
아메리슘241(Am-241)	433년(α)	11.2	24.5	62	2.5조
큐륨242(Cm-242)	162.8일(α)	298	13	0.12	1.5조
큐륨243(Cm-243)	29.1년(α)	0.46	0.43	0.34	4억
큐륨244(Cm-244)	18.1년(α)	55	51	39	6.7조
큐륨245(Cm-245)	8500년(α)	0.00083	0.00083	0.00083	160만
큐륨246(Cm-246)	4730년(α)	0.001	0.001	0.001	200만
합계		90000	30000	15000	약 60조

(출처 : 일본원자력자료정보실)

예배 자료 3

핵 관련 현안

1. 핵발전소의 부식과 문제들

한빛 핵발전소(전남 영광 소재) 4호기는 2016년 격납건물의 공극과 철판의 부식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식과 공극들이 발견되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게다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20년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망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격납건물은 핵사고시 폭발의 위험을 막아줄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조건부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9년 2월 1일(금)에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10명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사퇴와 위원장 사퇴 등으로 인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충원한 인원들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조건부 허가 역시 다섯 명의 위원 중 단 네 명의 위원이 모여 찬반을 물어 운영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온 국민의 안전의 문제과 직결될 부분을 단 네 사람의 위원이 결정했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조건부’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면 안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운영이 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력상황이 나쁘거나 당장 신고리 4호기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결해야할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가동을 시작하도록 허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있기 전 그린피스에서 599명의 시민의 동의를 모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입지가 가진 위험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의 위법성을 따져 묻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허가를 취소하려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설허가를 내릴 때 원안위에서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했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불법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으나 큰 지진의 가능성이 있는 단층 위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등장했던 것으로 보아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도외시한 판결입니다.

4. 생활방사능 문제

일명 라돈침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라돈’은 방사성 물질입니다.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호흡기로 흡수됩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은 주로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폐에서 강력한 알파선으로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암유발을 늘리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런 라돈이 침대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서 방출되게 된 것은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 때문입니다. 모나자이트를 곱게 갈아 매트리스 등의 제작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이유는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허위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광석을 찾다가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0년 이상 라돈을 내뿜는 침대에서 생활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라돈은 기체이지만 맛이나 냄새 색깔 등이 없으므로 특별한 기기를 통해서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준이 미비하여 이러한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으며, 위험을 알리는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 알려지긴 하였으나 위험 물품을 수거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사실상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5. 탈원전 반대 서명

탈핵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모여 조직된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라는 조직에 자유한국당이 결합하면서 서명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423,076명(3월 4일 현재)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지정고시만 되어있을 뿐, 공사 허가가 난 적도 없고, 공사를 시작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재개”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 역시 황당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이를 지지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일종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예배 자료 4

2019년 탈핵예배 중보기도

우리를 생명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주신 은총이 충분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편리를 누리기 위해 지구와 못 생명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핵이 많은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특히나 이 핵이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른척했습니다.
매일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가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고,
10만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독성물질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핵발전소를 닫는다 해도 이미 사용한 핵연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으나 수 년 내에 다섯 기의 핵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을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더 짓자는 사람들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지구와 못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미래세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할 모든 생명의 집인 지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료 5

핵 없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꿈꾸어서도 안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핵발전소는 편리해보이고, 깨끗해보이고, 풍요로워보였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한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멸로 가져가고
모든 생명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핵발전소는 이 시대의 선악과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외면했습니다.
체르노빌은 먼 나라 일이라고 구경만 했습니다.
후쿠시마는 특별한 일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크기를 늘여가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용기 없음을,
이제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가난해도,
핵발전소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기도하며 뜻을 모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료 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한국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해방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질서를 대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고난당하는 민중과 연대하였고, 1980년대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신앙적 과제임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신앙고백의 전통 위에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언했던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핵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라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술공학체제(Technocracy)와 대량살생의 군사 무기 및 무한성장을 통하여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제체제의 융합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권력체제이다. 이러한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피폭자의 자리에 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폭자’(被爆者)의 자리에 서서 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자의 10분의 1은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원폭박물관에는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망각과 무관심 속에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이 땅 위에 지어진 수많은 핵발전소로부터 많은 피폭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 위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핵에 대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삶의 자리이고 상황이다. 우리는 핵보유국의 눈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려 한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핵무기(nuclear weapons)는 군사용이고 핵발전(nuclear power plant)은 평화용이라는 거짓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용, 즉 원자탄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 원자로는 보통 발전(發電)을 연상시키지만, 원자로란 본래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을 천천히 발산시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발전이다. 태생적으로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다. 실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의 덮개 아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듯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핵은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더욱이 핵발전이 많아지면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혹은 테러 위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공격목표 1번 중 하나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핵발전소들은 북한 장사정포의 전략적 타격지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의 평화도 위협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라늄 부족은 수 십 년 전부터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라늄은 오래전부터 투기의 대상물이어서, 그것을 둘러싼 전쟁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핵은, 그것이 무기든 발전이든,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요구한다. 핵우산을 통한 방어든, 핵 공격을 통한 방어든, 핵을 통한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핵에너지 체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세계 핵산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과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 이후 급속히 쇠퇴하는 듯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기사화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핵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저탄소 청정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설사 발전부문에 국한해서 핵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핵발전의 전 과정에서,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및 농축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낭비가 심한,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다. 물리적으로 핵발전 과정에서는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이 전력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는 온배수(溫排水) 형태로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설상가상으로 핵발전은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극도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다. 핵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전력수요에 맞추어 출력을 조정하지 못한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동일한 출력으로, 그것도 언제나 최고의 소비 시점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서 핵발전에는 언제나 ‘남는 전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심야 전기’ 사용을 권장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 사회의 에너지 소비 전체를 과도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 세계 총 에너지 수요의 고작 2%만 충당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충당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핵은 틈새기술에 불과하며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이미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공급을 100%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로부터 탈피하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은 이

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과 파도 등의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 핵발전은 오히려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전력낭비를 부추기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를 억제한다. 핵에너지와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핵에너지는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가 아니다. 핵무기가 세계평화에 대한 틀린 해법이었던듯이, 핵발전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지구오염과 생명파괴는 창조질서의 파괴이고 신성모독의 죄다

인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하지만 단 1그램의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른바 폐연료봉의 재처리하는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류는 아직도 핵폐기물의 최종보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핵폐기물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선을 내뿜지만 그것을 생태계와 격리시키는 인간의 드림용기 수명은 고작 40년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보관할 장소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조에는 폐연료봉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폐연료봉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또 한 차례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한국사회가 깊은 분열과 진통을 겪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핵폐기물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대손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축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9기던 1991년에 2,312kWh이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5년에 7,403kWh로 3배나 증가해 이미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앞섰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그 4배나 되는 9,493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국민은 '핵생산자', '핵소비자', 나아가 '핵가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라는, 예고된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핵발전을 통한 전기의 풍요라는 '단맛'을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 1950년대 시작된 인류의 핵발전은 이제 공통적으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1978년 부산 기장에 고리발전소를 지으면서 매 18개월마다 1기씩의 속도로 지금까지 총 25기의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이제 우리는 매 18개월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1기씩의 핵발전소를 철거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 1기당 철거해체 비용은 무려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짓 풍요의 기초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의 과용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한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체제는 에너지 과소비와 소비주의로 귀결됐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대재앙은 인류가 핵으로부터 시급히 문명사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류에 대한 커다란 경종이었다. 당장의 소비지향적 삶을 위해 사회와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 이와 달리 절제와 인내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마태 7:13-14)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핵발전에 몰두해왔다. 2030년까지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핵발전소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정했고, 2011년 후쿠시마 대재앙을 계기로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세운바 있었다. 아울러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재처리연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핵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핵발전은 결코 녹색발전이 아니며 핵안보는 생명안보가 아님을 우리는 선언한다. 핵무기는 국가나 세계의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협한다. 진정한 안보는 핵보유국들의 안전이 아니라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안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요한 14:27)가 될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핵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발전 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핵발전은 실수 없는 인간을 요구하지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은 오히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자멸의 길이다.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에 기초한 진정한 녹색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가 시급하다

2017년 현재 한국의 24기를 비롯해 일본의 43기, 중국의 3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전세계 449기의 핵발전소가 운영중임을 감안했을 때, 세계 발전소의 23%가량, 10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지뢰밭’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며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 당시 약 30톤이나 되는 막대한 잉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약 1,000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서서 핵보유국들 기득권의 안보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안보가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일은 세계평화에 핵심적인 의제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이다. 절대 권능에 대한 금단의 유혹이다. 이러한 핵으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 체제는 지구생명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전쟁과 피폭과 오염의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CP-1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가 미국 시카고대학 운동장에 지어지면서 인간이 가히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교만 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형의 교만이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과 기독교 신앙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순어법이기 때문이다.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핵무기는 욥기 41:1-34에 나오는 ‘레비아탄’을 연상시킨다. 지구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박힌 핵발전소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가 13:14)을 연상시킨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총회의 결의대로,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힘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necrophilia)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행동강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로 말미암은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핵 위주의 에너지 과다소비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중심의 생태적인 사회로 갈 것인지를 갈림길에 서 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고 명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되어주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시며(롬 8:22)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서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1. 우리는 핵이 주는 환상과 유혹, 그리고 핵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신앙적 과제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며,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2. 우리는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핵관련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포기하고 핵발전소 부품을 수출하는

핵무역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근거로 한 국고지원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원자력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일괄 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4. 우리는 각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이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산업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책임적인 투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5.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6.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밀집 지역임을 인식하고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생명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7.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교·문화·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명문화의 창조에 나선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종교와의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한다.

8. 우리는 과학 없는 종교가 미신에 빠질 수 있듯이, 종교 없는 과학이 흥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기술만능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과학윤리를 비판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종교와 과학간 대화를 제안하고 실행한다.

2012년 3월 1일

2017년 4월 24일(개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예수살기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고기교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감리교 농촌목회자협의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교교수협회 / 기장생명선교연대 /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 생명평화마당 / 생명평화기독교연대 / 성공회 생명과환경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정의평화기독교인연대 / 하나누리 /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가재울녹색교회 / 강남향린교회 / 계동교회 / 새민족교회 / 지평교회 / 청지기교회 / 평화마을교회 / 함께여는교회 / 향린교회 / 흥덕새누리교회